



장수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교원 치유 연수

장수교육지원청(추영곤 교육장)은 지난 11일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산책 및 한방족욕체험, 공진당 만들기, 생화탕 약침 찌기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교원 대상 치유 연수는 교육 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교원들에게 심리·정서적 풀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원들의 정신건강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교원 치유 연수 등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주요 요소이므로, 교육계의 최소한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교관호 기자



공무직노조 무주군지부,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전국공무직노조 무주군지부가 지난 11일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무주군 민체육성센터에서 진행된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오순덕 지부장은 "행정 지원과 민원 처리, 시설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제 수행 지원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것"이라며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것인 만큼 학생들의 꿈과 학업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도 사회공헌도 모두 무주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임을 상기하며 노력하는 무주군 공무직노동조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무주군수)은 "군정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이 바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오늘이자 무주다운 무주 행복의 군민 실현을 가능하게 할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글로벌 한민족 사회 발전 위해 노력”

글로벌한상드림, 전북자치도·전주시 대학생 20명에 장학금 2000만원 지원약정

글로벌한상드림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2016년 재외동포 경제인 한상(韓商) 리더들이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정영수 리딩CEO포럼 공동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10월 11일 기탁식에는 김관영 지사, 김점배 글로벌 한상드림 부이사장과 장학금을 기탁받은 이현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진흥원장 및 전주 인재육성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한상드림은 차세대 한민족 인재를 양성하고, 모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도내 상경 계열 성적 우수 대학생 18명과 세계한인비즈니스 스타트업 피칭대회 수상자 2명, 총 20명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사회와 젊은 인재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한상드림 정영수 이사장은 "재외동포경제인 한상의 도전정신과 민족사랑의 유산과 가치가 전북도와 전주시 지역의 청년들에게 잘 전달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글로벌 한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남원시 동통동지사협, 대성식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지난 10일, 관내 대성식당(대표 김재남)에 착한가게 24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사가 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남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충동지사협, 다음비디스튜디오에 착한가게 현판식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지난 10일 착한가게에 가입한 다음비디스튜디오(대표 안진정)를 방문하여 현판식을 가졌으며, 공동모금회에서는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현판'을 통해 이를 인증하며 가게홍보와 함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차남 동충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복지 활성화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주민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고려병원,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주고려병원이 지난 10일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11일 전주대에 따르면 전주고려병원 김수옥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윤진영 대외부총장, 소현성 교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앞서 전주고려병원이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수옥 이사장은 "전주대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고려병원과 전주대학교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금을 기부해 준 고려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기금은 우리 대학이 개교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대학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고려병원은 1994년 첫 진료를 시작으로 200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정은성 기자

자립·회복 향한 든든한 동반자... 정읍시, 정신건강 클럽하우스 운영

정읍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주 3일간(화, 수, 목) 센터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며 정신건강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정신질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리를 강화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센터 회원들은 가을을 맞아 '정읍구절초꽃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했다. 이처럼 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정신질환자들이 일상 속에서 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돕고 있다.



올해 클럽하우스는 회원지원활동, 요리, 문화여가, 원예 등 총 196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1855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경찰, 학교 뎀페이크 등 특별범죄 예방교육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뎀페이크)와 사이버도박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임실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은 한국치즈과학고를 비롯해 오수초등학교, 임실중학교 등 초·중·고를 찾아 뎀페이크 및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추천 전주매일 창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의회 /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 발로 뛰고 행동하는 공감의회

남원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http://council.namwon.go.kr